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가정    제목: 예수님의 계명    성경:요한복음 15장9-17절

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13:34)

12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15:12)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7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요 15:9-17)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그것이다.

새 계명이라 하셨으니 옛 계명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옛 계명은 십계명이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새롭게 해석하셨다. 새롭게 해석하셨다는 뜻은 과거와는 다르게 해석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점을 지적 하시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실 때의 의도를 분명하게 밝혀 주셨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십계명의 핵심을 정리해 주셨다.

그것은 첫째 ‘너의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라’ 이다.

그리고 둘째도 사실은 첫째와 똑 같은 것인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다시 말해서 옛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새 계명도 옛 계명과 똑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 사실은 옛 계명과 똑 같다.

열가지 계명이 각각 다른 것인 줄 알았는데, 교과서 제11과를 펼쳐 보니 앞서 배운 열가지 계명 중 처음 네가지는 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라는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제12과를 펼쳐 보니, 거기에는 뒤에 있는 나머지 여섯가지 계명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제13과를 펼쳐 보니, 12과 까지는 옛 계명이기 때문에 새 계명을 줄 터인데,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흔히 우리는 1과를 배우고 2과를 배울 때쯤 1과는 뇌리에서 사라진다. 10과쯤 지난 다음에는 1과를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법도가 이렇느니 저렇느니, 이래야 하느니 저래야 하느니 말이 많아진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잊을 수 없다. 왜냐면 계속해서 그 다음 과목이 여전히 ‘사랑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제2012과를 공부하는 날인데, 2012번째 과목의 주제는 대단히 새로운 계명인데, 그것은 ‘찢히게 사랑하라’이다.

사랑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사랑하다가 지친 사람들에게 말한다.

이제는 덜 사랑하더라도 진지하고 더 현실적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짐착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에게 말한다.

잔소리하고, 바가지를 긁으며, 짜증을 내는 것이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서로 사랑하라. 더 치밀하게, 더 열정적으로, 더 분명하게.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하는 날이다.

가정의 가치는 참으로 고귀하다. 사람들은 이 가정을 이루고 또 지키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러왔다. 정부에서는 가정을 지켜내지 못할 경우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가정을 지켜내지 못할 경우 세상은 극심하게 악한 세상이 된다. 아이들은 양육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은 불행과 불법을 경험하게 되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삶의 질은 추락하게 되어 최악의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과 국가를 튼튼하게 하려고 가장 큰 희생을 치른다.

만약 가정이 깨어지면 본인 스스로에게도 큰 상처이고, 또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상처는 배가되고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그렇다고 이렇게 깨어진 가정을 방치할 경우 사회적으로는 더 큰 부작용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어머니와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한다.

결혼과 가정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수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복의 밭이다. (독신의 은사는 예수님과 결혼해서 교회라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결혼을 행복한 시작으로 여기지 않고, 준비된 행복으로 여기는 경향이 짙어졌다. 물론 준비되었다면 더 좋은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충분히 준비 되어야만 가정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건강하게 자랐고, 가정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이 있다면 진정한 사랑이 가정을 시작할 수 있게 한다. 물론 모든 경우에 그 사랑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선을 행하며, 희생하고 섬기며, 법을 지켜야 한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힘써 일한다는 것을 뜻한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식구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희생하며 섬긴다는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을 지킨다는 것은 내 가정이니 내 맘대로 한다고 하지 않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법대로 가정을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여러 가지 사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을 말씀 하시면서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셨다.

우리들의 사정 이야기를 들어 보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렇다면 그럴 경우에는 정말로 사랑하기 어렵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물론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다 이해하실 것이다. 그리고 용기를 주시며, 돌보아 주시며, 이렇게 말씀 하실 것이다. ‘그래도 결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특히 어려워 졌을 때 조심하자. 행복할 때는 사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불행이 시작되었을 때, 몸이 아플 때, 배고프고 추울 때, 견디기 힘들 때,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사고를 당했거나 사기를 당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마땅한 대우를 하지 않았을 때,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내것을 빼앗아 갔을 때 조심하자. 이때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랑하기 어려울 때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위기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상은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내가 함부로 행동할 때 다른 사람들도 위기를 느끼고 그들도 덩달아 함부로 행동하게 된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악한 것들이 확대 재생산된다. 그래서 어려울 때 특히 조심해야 한다.

또한 외로울 때 조심하자. 우울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서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 내가 베푸는 사랑만큼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고, 나는 억울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조심하자. 그때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노리는 순간이다. 내가 악을 선택하는 순간이 으르렁 거리는 사자가 나를 덥치는 순간이다. 이때는 갑절로 사랑해야 할 때이다. 그 이상의 답은 없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식구    제목: 식구를 이해하기    말씀: 사무엘하 18장  
24-33절

24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 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25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26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27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달음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달음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28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29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30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31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뢴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32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33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삼하 18:24-33)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아들, 그술왕 달매의 딸 마아가의 소생. (둘째는 갈렐여인 아비가일이 낳은 다니엘)

(넷째는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

제일 정치적인 인물. 정치가의 기름부음이 있음.

체구가 건장하고, 아름다운 긴 붉은 머릿결을 자랑함.

25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 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삼하14:25)

요압이 압살롬의 정적.

다말사건을 계기로 암논을 살해함. 이때 이미 압살롬은 나라를 엿보고 있었다.

그는 외가로 피신하였다.

요압의 계략으로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돌아오나, 가택연금 상태가 지속됨.

아직까지 다윗은 그를 너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아니함.

-아무리 용서 되었어도 친근해 지기까지는 시간과 사건이 필요함.

-관계를 당위성으로 따지지 말 것, 용서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말 것, 사랑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말 것. 그런 것들은 사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왕자의 지위를 회복한 압살롬은 본격적으로 정권을 향한 욕심을 드러낸다.

-백성들의 마음을 흠치는 압살롬.

-호위병을 둠.

-헤브론에서 서원을 드리는 잔치를 벌여 세력을 모음.

-매우 치밀한 반역으로 거의 성공할 뻔함.

-그러나 전략에서 다윗을 당하지 못함.

모략가 후새와 제사장 사독(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공이 큼.)

아히도벨의 모략이 땅에 떨어짐.

다윗은 지형을 이용해서 전략을 짬. 전쟁에 능한 부하 장수들은 틀림없이 이기는 싸움을 하게 됨.

-다윗은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간곡하게 부탁함.

-그러나 요압은 반드시 압살롬을 죽이기로 결심함.

-압살롬은 자신의 자랑하는 머리카락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됨.

-요압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압살롬을 침.

-아히마아스는 자신은 이런 도륙과는 상관없음을 보이기 위해서 먼저 달려가서 보고함.(지혜로운 자)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온 나라를 도둑질하려는 악한 압살롬이었지만, 다윗은 그를 사랑했다.